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유 걸

미국(AIA) 건축사(1984년)
1940년 5월 19일 철원 생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1963년)

내가 본 건축가 유걸

그의 나이가 일흔을 넘었다는 사실을 그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를 일흔이 넘은 노건축가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의 작품은 싱싱하고 젊고 도발적이기 까지 하다. 젊은 건축가들에게 '너희들 나만큼 할 수 있어' 라고 뽐내는 듯이 말이다. 아마도 그가 미국에서 가구 만들기, 집지어 팔아보기 등의 일반건축가들도 좀처럼 해보기 힘든 영역을 넘나들어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건축가 혼자 사무실을 꾸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미 깨닫고 재능있는 젊은 건축가들과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조직을 이미 만들어 낸 것은, 역시 내용 중에 스스럼없이 그가 밝히는 돈을 벌고자하는 목적보다는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며 건축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묘수풀이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건축을 만들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된다.

최동규 편찬위원장

화가인 부친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미술대학보다 건축과를 가서 많은 돈을 벌고 싶었다

내가 왜 건축과를 지망했나를 마흔 살이 넘었을 때 생각해보니, 고등학교시절에 조각 반에 들어가 여가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각도 하고 했지요. 부친께서 일본 우에노대학을 나오신 화가(유형목)신데 평생 미술선생을 하시면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 탓인지 미술대학은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돈을 벌어서 서른 살에 조각만 하겠다고 생각했지요. 1959년에 공대를 입학했는데 건축과가 집짓는 데인지 부동산을 다루는 데인지 분간을 못했습니다. 당시에 나는 떼돈을 벌거라고 생각했지요.

다시기억해보니 큰형이 5학년 때 검정고시보고 공대건축과 입학이 안 되어 의대에 지망해서 의사가 되고, 둘째형도 건축과 지망했다가 세브란스의대에 입학하여 의사 되고, 그래서 저더러 건축과 안 되면 의사 되서 삼형제가 병원 차리자고 하셨지요. 의사인 형들은 안정되게 살고계십니다.

건축과에서 설계는 늘 A학점을 받았다

건축과 다니면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만드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인데 다른 과에 입학했다면 졸업 못했을 지도 모르지요. 대학교 학점이 전반적으로 형편없었는데 설계학점만은 늘 A를 받고 평균이 C였으니까 다른 분야로 갔으면 졸업 못했을 것 같습니다.

대학졸업 후 무애건축을 거쳐 김수근 선생에게로 가다

63년에 졸업하고 이광노 선생이 하시는 무애건축에 들어갔습니다. 삼년일하다가 공일곤 선생이 무애에 들어왔는데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더러 당신은 공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요. 당시 저는 김수근 선생 이름도 모르고 그 사무소가 건축을 어떻게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를 때입니다. 단지 선배가 권하니 그러면 그리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65년에 무애를 그만두고 65년도에 김수근 사무소로 갔지요. 공일곤 선생의 도움이 컸고 윤승중 선생에게 전화해서 김수근 선생에게 저를 추천해주었지요. 거기서 68년 말까지 직원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70년 말까지는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주로 김수근 선생님 일을 많이 했지요. 주로 공간 일을 하게 된 데에는 조영무 선생이 권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70년 초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71년부터 미국 덴버의 설계사무실에서 일하다

덴버에 있는 사무소에 71년 1월부터 75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만두고 덴버에서 다른 사무소에 취직할 생각이 없었어요.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안정이 되니 오히려 안정되는 것이 불만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처남이 가구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가구 만드는 일을 해본거지요. 그때 디테일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그때까지 12~13년 동안 설계 사무실에서 작업을 할 때도

대부분의 일들이 계획하는 일 들이 주고 실시설계라든지 상세를 접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계획만하면서 늘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요. 그런데 가구 만드는 것이 썩 장사가 잘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80년대에 미국에서 집을 지어 팔았다

80년대에는 미국에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직접현장에서 집을 지을 때 목공일도 손수하고 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을 직접 잘할 수 있습니다. 서너 채 지어본 다음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도 지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결론은 생각을 하면 생각한대로 집은 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지요. 지어 보고나니 계획한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은 좋다. 상상이 된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말하지요. 83~84년까지 단독주택을 지어서 팔아보았는데 그것도 돈을 못 벌더군요. 그때 내가 확인한 것은 돈을 벌려면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올림픽선수촌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한국에 나오기 시작하다.

당시 한국에서는 막 올림픽준비로 84~5년 당시 올림픽관련시설들이 설계경기로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올림픽선수촌이 우규승, 황일인 팀에서 당선되었는데, 우규승 선생이 저더러 같이 하자고 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85년부터 서울에 나오게 되었고 관계를 맺게 되었지요. 올림픽 치르는 동안 성북동에 서세옥 선생 주택을 짓게 되었는데 미국가기 전에 내가 설계했던 것들과 비교를 해볼 때 한국에서는 한옥 옆에 집을 지으면 한옥과 조화가 되는 계획안을 생각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오히려 대비를 시키자고 생각했고 그대로 되었고 제가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북동 서세옥 선생 댁을 비롯 전주대학교회를 설계하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 교수가 덴버신학교로 유학을 오시고 한 블록 떨어진 집에 살았는데, 그분이 학교로 돌아간 후에 대학교회 짓는데 할 수 있겠냐고 해서 그 일로 서울에 자주 오게 되고 그런 차에 강변교회도 설계하게 되었지요. 그 당시는 서울에 사무실이 있었고, 그 당시 일하던 분이 현재 파트너로 있는 김정임소장입니다. 그러다가 천안고속철역사를 하게 되었지요. 첫 번째 고속철역사인데 당선이 되었고(건원 합작) 97년도에 IMF 때문에 전부 백지화되고 디자인이 변경되어 많이 축소되고 원안은 실현을 못하게 되었지요. 당시에 콘코스가 협소해지고 고가구조이며 도시는 철도 앞뒤로 다 존재하는데 도심을 관통시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특히 철도로 분리되는 도시를 어떻게 하나로 연결시키는가를 많이 의식했지요.

2000년 경희대학교 건축과 교수로 초청받다

2000년 경희대학교 조창한 교수가 은퇴하면서 경희대로 오라고 해서 서울에 더욱 많이 있게 되었지요. 점차 서울 사무실에 인원이 많아지면서 책임도 생기고 오히려 서울에 주로 있으면서 미국을 방문하는 생활패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게는 김수근 선생의 공간사 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순수예술 하는 식으로 형태를 만들었으나 김 선생이 '나는 이런 거 못 팔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마치 건축을 조각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 말 듣고는 너무 창피해서 공간사에서 더는 디자인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과 말할 때는 이유를 정확하게 댈 수 없는 것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직선, 원 등 왜 채택했는지 늘 설명이 뒤따라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이 도움이 되어 습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몸에 배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사무실에서 일할 때 미국의 경우 분석이 습관이 되어 있는 나라였지만 자신이 있었고 미국 사무실에서 처음 일할 때 말이 잘 안 통하니 천상 그림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 엄청나게 많이 그렸습니다.

미국 설계사무실에서 건축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강훈련을 하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옐로우페이퍼 트레싱지를 한 덩어리씩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삼 년 하다 보니 비주얼라이즈(visualise)하는 것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건축은 생각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트레이닝이 된 거지요. 미국에 가게 된 동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시 서울에서는 건축가로 내가 취직할 때가 없었어요. 당시에 내가 사무실을 차린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고 아직도 학생이라는 생각이었고 돈을 받고 설계를 한다는 생각을 서울에서는 못했습니다.

당시는 일본도 못가고 중국도 못가고, 넓은 나라인 미국에 가서 지낸다면 좋을 것 같았고 미국은 큰 나라라 공간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사는 것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주해서 오는 문화충격은 큰 것인데 설계사무실 들어갔을 때 그들과 내가 생각하는 판단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힘들었지요. 내 생각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힘들더군요. 그러면서 나는 한국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당연해 보이는 것들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건축적으로는 내가 많이 실용적이 되었습니다.

건축주의 니즈(needs)를 해결해주는 실용적인 마인드가 되다

한국에서는 설계할 때 건축가들의 생각이 많은 결정요인이 되었었는데 비해 미국에서 일하면서 건축주의 니즈(needs)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쪽의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건축가 마음대로 구나하는 생각이라는 거지요.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건축계가 건축가의 낙원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건축은 현실을 토대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디자인은 힘이 없습니다.

저는 성격도 그렇지만 건축적으로 툭 터진 공간을 좋아하는 것은 덴버에 살면서 만들어진 감각 같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공간감은 좋게 말하면 아기자기하고 나쁘게 말하면 조잡하다고 까지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시원한 힘은 없어 보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있었어도 그런 감각을 유지했을지는 모르지요.

적정 설계비란,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 마음 편하게 먹고 살 정도가 되어야한다

서세옥 선생 주택 일 이후에도 일이 계속되는데 설계비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고민했습니다. 덜 받고 많이 해주면 손해보고 많이 받으면 도둑놈이라고 할 텐데 적정선이 어떤 것인지 고민한 거지요. 최종생각은 일을 하는 동안에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를 받으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지요. 그런데 편하

게 먹고 살 수 있는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다음 일할 때까지 간격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누가 먹여 살리지 하는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나 말고도 과실을 맺는 나무를 생각하며 파트너십 체제로 사무실 조직을 바꾸다

사무실을 만들자고 생각한 것은 나와 또 모두가 같이 과일을 따서 먹는 나무를 만들자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엔티티(business entity)를 생각한 거지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생산(produce)을 하고 보상(reward)을 받는 그런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파트너십으로 운영한지가 7~8년 되었습니다. 파트너십으로 하기 전에는 내가 주로 일을 만들고 내가 급료를 주고 그랬지요. 아이아크 만들기 전에 인터아키텍트라고 90년 말 2000년 초에 손학식, 조병수, 고주석 박사, 유걸 등 네 명이서 풀(pool)로 장소를 공동 이용하고 현상도 같이하고 그러자는 취지로 이삼년간 장소를 이용하고 그랬는데 어느새 각자 독립해서 일을 할 만하게 되고 나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운영하다가 파트너십으로 바꾼 것이지요.

파트너는 일도 수주해 오지만 운영에도 책임을 진다

파트너는 박인수, 김정임, 유걸 이렇게 셋이서 했는데 그다음에 하태석 씨가 합류했지요. 파트너들은 운영에도 책임을 집니다. 수주부터 운영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는 돌이켜보니 돈 버는 데는 기술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돈 문제에는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자신이 그나마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니 설계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나 열심히 하자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운영에 능한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더욱 공동운영하고 모든 것을 같이 협의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밀알학교, 배재대학 등의 좋은 건축주를 만나 좋은 결과를 얻다

개업 후 대표적인 일들을 돌아보면, 2002년에 밀알학교를 했습니다. 아이아크에서 한 프로젝트는 중간에 버려진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로 시작해서 감리까지로 끝나게 되는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지요. 그러니 내가 설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할 프로젝트가 없다는 말이지요. 저하고 건물에 대한 관계를 볼 때 오히려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기억이 납니다. 밀알학교를 제가 나가다보니 객관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배재대학교의 국제관과 기숙사, 신학관(2010년 준공) 등의 건물이 기억납니다. 배재대학은 참 좋은 건축주입니다. 오너가 없는 대학인데 총장부터 시설과 까지 좋은 분 들입니다. 건축주가 건축설계를 즐기는 편이지요.

트라이 보울로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다

최근에 안중근 기념관 준공식에 건축사가 앉을 자리도 없었다고 들었는데 배재대학은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건축가를 먼저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건공장(2004년), 강변교회, 경희대학교 강의동, 트라이볼(201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아산정책연구원 등입니다.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트라이 보울 이지요. 건축적인 성취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건축적으로 구조설비 등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쓸데없는 것이 전혀 붙어있지 않은 건축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장(statement)이 강한 프로젝트입니다.

회사규모는 50명 정도 되구요. 파트너는 저를 포함 신승현, 오서원, 김정임, 하태석 등 5명입니다. 매출이 50억 수입이 30억 정도 됩니다. 저 빼고 다 사십대 초반입니다.

저는 생물학적으로는 70이 넘었지만 나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를 생각안하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로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의 자격은 혼자 집을 지을 수 있으면 되고 건축주가 믿고 맡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파트너의 일차적인 능력은 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냥 생산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아크의 파트너는 독립된 건축가의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건축가에게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받느냐와 어떻게 인식되느냐 인데 두 가지를 적당히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축프로세스과정은 만능인을 필요로한다

건축프로세스에서 각자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직이 커지면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는 데 작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스페셜라이즈(specialize) 된 팀이 테크놀로지(technology),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lity), 퀄리티 컨트롤(quality control) 등 세 분야를 지원하고 설계를 하는 팀은 제네랄프랙티셔너(general practitioner), 제네랄리스트(generalist), 르네상스맨(renaissance man)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 년에 50억을 벌면 엄청나게 행복하지요. 순수입은 30억 정도입니다. 실시설계 등 모든 것을 사무실내에서 전부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을 좀 더 높이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축가들이 생산성이 낮은 편입니다. 설계과정을 보면 리소스(resource)들을 사장하고 일을 정리 조직하여 적합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아이아크의 강점은 장기적인 변화 단기적인 면에서 볼 수 있는데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면에서 4년 동안 전 사원이 레빗을 사용하여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실제로 짓는 거와 3D로 그리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에서 평면 단면 그리면 세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중에 현재로는 건축설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을 뿐이다.

사십대 중반에 위기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설계를 하려고 사나, 살려고 설계 일을 하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집 식구들 먹여 살리는데 좋은 수단이 있다면 어떤 직업이라도 택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건축을 굳이 안 해도 좋다고 까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배경에 깔고 있지요. 그런데 마치 건축 때문에 사는 것 같은 사람도 보는데 그것은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다른 직업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아직까지는 내게 설계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권위주의를 싫어하고 수평관계를 중시한다

나는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사회에 대한 생각 에서도 권위주의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할 때도 그런 생각이 있고 직위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파트너라고 이름을 붙였고 직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애려고 합니다. 다만 수평관계중심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대내적으로도 익숙하지 못하고 호칭도 문제고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건축주를 만나든지 하면 상대가 직위가 있으니 이쪽도 직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때 불편하지요. 수평관계를 어떻게 정착시키는가가 우리사무실의 커다란 이슈중의 하나입니다.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강한 생산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권 승계 문제는 이미 파트너 중심 수평관계 중심에서 보듯이 오너십 중심의 관습은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어떤 오너십 승계의 문화가 더 지속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보다 파트너가 일을 더 많이 따오면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건축가라는 전문의식 때문에 본연의 인간성을 잃지 말라

후배건축인 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전문직들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이 전문 의식 때문에 본연의 인간성을 잊는 때가 많습니다.

건축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걸 자체로 살아가는 것, 건축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 각자 하나의 개인으로 사는 것이 한국문화풍토에서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하나의 소탈한 인간이 될 수 있으면서도 정치인이 되면 변신하여 백팔십도 연기자가 되는 것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건축을 잊어버리고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신조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나를 보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어요. 답답한 것도 싫고 어찌 보면 청개구리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것도 싫습니다. 요는 어느 편에 묶여지는 것이 싫은 것이지요.

내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장래 목표도 없어요. 내가 살아온 것을 보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미국에서 집을 지어본 경험이라든지 나의 삶 모두가 지금 내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되었는데 계획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거든요. 요즘 특강요청을 받으면 열린사회, 열린 건축에 대해 말하는데 사람들이 투명하게 열림 마음으로 사는 세상을 건축화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교회프로젝트가 하나씩은 있는데 천안역 앞에 짓는 교회가 있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 강의 동, 카이스트 과학 동 등 대학교 설계를 자주하게 됩니다.

설계할 때 중시하는 것은 공간이 인간보다 우월하게 느껴지지 않게 하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설계 시 강조하는 것은 공간이 인간보다 우월하여 사람을 지배 할 수 없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한번 해본 것은 다시 하고 싶지 않고 늘 다르게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건축계의 환경이 열악한 것이 건축주의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건축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며 건축계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현재 한국건축계의 건축 환경이 열악한 것을 다 건축주의 문제로 본다면 오히려 좋은 건축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지요. 건축설계환경이라는 것은 건축가가 편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면 설계는 잘해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건축주가 건축가를 신뢰할 때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데, 건축가가 신뢰를 얻을 일을 못하는 건지 건축주가 신뢰를 주지 않아 그렇게 일을 못하는 것인지 논란을 할 수 있겠지만 건축가의 편에서는 먼저 신뢰를 얻도록 일을 해야겠지요.

건축 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건축계 자신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가라는 전문인 의식 때문에 건축 밖의 세상과 인간적인 소통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계도 담으로 막혀있습니다. 건축주와의 소통도 필요하고 건축계의 합의된 의식을 만들어 내기 전까지는 건축 환경이 잘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를 선정하는 방법이 왜곡되어 있다

잘사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의식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소통이 필요한데 현재는 사회의 각 분야가 격리되어 있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계 밖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매스컴인데 건축분야를 잘 다루지 않고 있어 그것도 큰 문제의 하나입니다.

건축도시의 발전에 기여를 하기 보다는 사업상 설계사무실이 대형화 되어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을 제도사 정도로 생각하면서 발주되는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는 건축가를 선정하는 방법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건축가보다는 디자인을 선정하는 거지요. 계획안을 선정하기 보다는 건축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설계일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현상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축 계획안이 바로 건축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데서 비롯된 거지요. 그런 풍조 때문에 건축가가 소외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단체의 책임이 막중한데 비해 이를 해결하려는 절실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안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의 합일점을 도출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일을 건축단체인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학회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절실한지 모르겠습니다.

턴키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현상은 없어져야 됩니다. 건축계도 책임이 있습니다. 디자인 보다는 디자인을 만드는 자신의 생각이 보편성을 갖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